

아시아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물음에서 이 수업은 출발했다. 원래 모든 일은 처음 시작한 시점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박성빈 교수님께서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은 바로 아시아의 범위가 무엇일까, 다른 대륙과 다르게 우리는 왜 공동체 개념의 것이 없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께서는 호주나 뉴질랜드가 아시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의 기분은 바로 ‘충격’으로 시작했다. EU라는 유럽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이전부터 익히 알던 사실이었으나, 왜 그것이 아시아에 실현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본 바가 없기 때문이다. 첫 수업에서는 아시아 공동체가 시도되었던 역사를 주변 주요국들을 토대로 보여주었다. 중국의 중화사상을 토대로 한 중화에 따른 아시아 통합 시도나 일본의 동아시아 공영권을 통한 일본 중심의 아시아 공동체 창조 계획이나, 유럽인들의 아시아에 대한 시각이 그것이었다. 수업 이후에는 혼자만의 생각하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됐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굳이 교수님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도, 본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국내외 저명한 교수님들의 각 분야별 전문성을 토대로 한 지식은 분명 차이가 있다. 그것을 취사선택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몇몇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으나, 크게 개의치 않고 강의를 들어 나가며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이제 수업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왕희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 기틀을 잡은 후 이어진 수업들에서는 아시아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강의들이 이어졌다. 기억에 남는 수업으로는 물론 첫 수업인 이왕희 교수님의 수업은 메카르토의 세계지도 등 아시아에 대해 유럽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 생활에 물에 눈 녹듯이 반영되어 아직까지도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친다는 그러한 내용의 아시아 공동체의 기틀을 이해하는 데에는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그 이외에도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노동에 대한 내용 - 북한의 외화 수입을 위해 파견되었으나 현지에서도 많은 인정을 받고, 성공적이라는 내용 - 과 학부생에게는 접근하기 힘든 좋은 기회인 일본 재무성 관계자를 초청한 학술 토론회를 통해서 국내의 일본에 대한 입장과 현직 재무성 직원의 즉문즉답을 들을 수 있는 얻기 힘든 기회를 얻었고, 소설 GO를 매개로 하여 제일조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로 잡은 강의 등이 있습니다. 특히 GO에 대해 강연한 강연자님의 경우에는 굉장히 의아한 접근법을 통해 아시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에 도움을 주셨는데, 소설을 통해 흥미를 불러일으킨 후에 축구선수 정대세 등의 예시를 통해서 한반도에 대한민국 국적 이외의 다른 국적 ‘조선’이라는 국적에 대해서 알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공동체론을 처음 수강할 당시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했던 좋은 성적과 장학금의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금액이나 성적을 떠나서 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굉장한 기회를 잡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심화학습을 하는 등의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이런 훌륭한 수업을 개설해주시는 것입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수강 신청을 하며 “이거 잘하면 장학금도 준다는데 그냥 열심히 암기해서 장학금이나 타야지~” 라는 생각으로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만 들으면 들을수록 저의 안목이 깊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공동체론을 수강할 마음이 있는 국제 통상 복수전공자들이나, 타과생들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꼭 한번 들어보신다면 외국에 수백만원의 돈을 들여서 나가지 않아도, 본인이 관련 서적을 읽지 않더라도 저명한 국내외 강연자님들의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꼭 수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학군단을 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갈 기회가 없는 본인에게도 더없이 좋은 기회였는데, 국제통상을 전공하는 전공자들에게는 솔직한 심정으로 전공 필수로 지정해서 모든

학생들이 수강했으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는 힘들 수 있으니 이 글을 보는 모든 국제통상 전공자들은 필수로 수강하시고, 타과생들이나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꼭 수강하시고 장학금보다 더욱 큰 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마칩니다.